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칠석과 백중을 지내는 마음가짐

문 스님, 저는 불법에 인연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절에 다닐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출근 할 때 선원 앞을 지나다가 선원 벽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마음을 밝히는 칠석, 은혜를 갚는 백중"이라고 쓰인 문구를 보고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통 풍습인 칠석이나 백중이 그토록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대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요.

답 칠성이라는 거는 내 몸과 더불어 같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성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한 거죠.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돌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중은 들어 아닙니다.

그리고 백중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바뀌어서 짐승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시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칼산지옥 화랑지옥, 또 오

무간지옥 독사지옥 등 이러한 이름들이 허다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게 독사지옥입니다. 허물을 입었으면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화랑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몰아안 있어서 굶는 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그렇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현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면 다음 세상에 나올 때도 또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거는 뭐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 서 벗어나라 이 소립니다. 내 몸 통이 독이니까요. 내 몸 통이 독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 통

지극히 해서 그 몸을 벗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백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때 더러더러 나오죠. 그런 경우와 같이 백중 때는 남한테 모함 받아서 들어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다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중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재를 세 번 네 번 지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자꾸자꾸, 그저 되는 대로 해야죠.

또 그와 같은 문제들을 겪고 가야 하나요.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지 만 그게 아니죠. 내가 풍채 얘기도 가끔 하고 무우씨 얘기도 가끔 합니다. 무우씨 씨이 말입니다. 씨이 없으면 그만이지 이러지마는 그 종자가 있어서 심으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돌아가야죠. 그러나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풍씨가 팔찌가 될 수도 있고, 팔찌가 풍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상승의 사람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下)의 종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자유자재 권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칠석이든 백중이든 그 의미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성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십시오. 또 백중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그대로가 백중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無心)세계, 유심(有心)세계 둘이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세계 유심세계가 둘 아니게 정신과 물질인 몸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으니 항상 하얀 백중이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현실 과거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영원하게 자유자재 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하십시오.

삼세를 돌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중은 하나!

수십 번 그냥 돌아가면서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랑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칼로 그냥 산 놈을 탁탁탁 쳐서 모두 먹죠?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어찌 칼산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칼산지옥이니 화랑지옥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의 삶 그대로입니다.

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하나, 화랑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모두 보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백중을 지내는지 아시겠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님으로 화해서 이 세상 지옥에도 떨어 졌다, 물고기로 태어나고 또 소로 태어나고 뭐 독사로 태어나고, 가지각색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틀에 끼었다 이런다면, 여러분이 천도재를

그렇다고 믿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좀 나아지게 됩니다. 나아지면서 마음먹은 대로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조상님들이 다시 모습을 변화해서 인간으로 될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가 돼도 또다시 그러한 문제를 풀이지 않지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다음에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오직 마음 안으로 들어대야

공부하면서 경계해야 할 문제

문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라고 합니다. 바깥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나태해지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힘이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체에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를 마련하려 하오니 마음 도리를 공부해 나가면서 꼭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경계의 말씀과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세요.

답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게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佛)이요, 나와서 세상 들어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敎)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빼놓고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렵게 믿지 마시고 간편하게 믿으세요.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다 공부니까요. 또 움직이면서도 흔들림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참선이고요.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면 좌선이요, 누워서 하면 그대로 외선이 되고요. 앉든 서든 그대로입니다.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행선이 되니, 그대로만 실천을 한다면 일체 행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 안으로 들어대야 합니다. 바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서 믿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가 가 맡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 잘 안됐으면 '안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가 놓고, 이렇게 굴러 가면서 하다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거기서 감응이 되고 그 감응이 이제 좀 지나고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와요. 말이 하고 싶을 때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나. 남이 물어보면 관(觀)하는 도리만 얘기해 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고 어떤 것이 안됐다고 내세우지도 말라 이겁니다. '안됐다고 잘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갖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를 내세운 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자기가 없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잘됐다 못됐다 이거를 내세우다 보면 공부는 땅이라고요. 제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하다 보면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게 되고, 쪼끔쪼끔 가다 보면 자기가 그만 빈

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죠. 그러하면 영계성으로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단 전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몸으로 끄달리다 보니, 몸도 바깥이거든요. 이게 물질적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영계가 들려서 아단인 사람도 있고, 정수리로 뜨거운 게 김이 올라와서 귀로 들리고 아단인 사람도 있고, 몸이 떨려서 아단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부지름 못 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이리저리 떠들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록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무슨 무슨 부처님 부르고 이렇게 아주 지극 정성으로 하는 사람이 영계성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떠다니고 기웃거리리는 그런 영령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는 지도 모르고, 자기 몸에 있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그냥 아주 간 사람이 되죠. 맞이 간 사람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참, 자기 혼자 그런 것도 뭐하지만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극히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나쁘다 좋다, 밍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미워하고 '저런 거 없으면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과 생각, 그것이 바로 모두 업이 됩니다. 그

약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든 가 또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디고 좀 느리고 이런 거는 있어지던 정 그거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듯이 녹음기에 자동 녹음이 됐는데 자동차도 또 거기가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됩니다. 업을 끊을래야 칼로 잘 베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녹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첫째, 이 공부하는 데에 도묘아미타불을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은 잘됐다 못됐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한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수많은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습을 때에 가면서 모든 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철 사는 기간 동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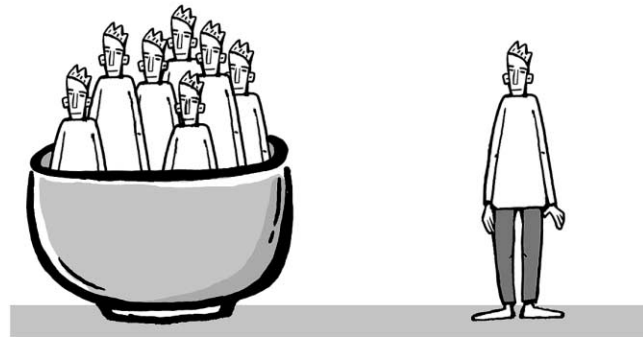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를 자기한테 두고서 우리 몸은 탑돌이 하고 있어요

러니까 말을 하면 구업이 되고, 마음으로 하면 의업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타치는 거, 미운 거 고운 거 이러더라도 '밋다 곱다' 하질 말고 안애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니깐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가 밋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 줘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업이 녹는다는 얘기죠.

그러신 양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술을 마시고 그러더니 자꾸 관(觀)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니까 어느 날 그냥 술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게 되리라고요. 그 마음을 그렇게 밋게, 그냥 말을

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다음에 또 나와서 고생을 또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다음 생애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과의 연관성을 몰라야 할 수는 없죠. 항상 이렇게 염주할 께어 있어도 그렇게 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네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빨리 성취를 해야 빨리 그네들도 따라서 성취가 됩니다.

위대한 법이 생활 속에 있는데

문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한마디 말 을 하지 않아도 오고 감이 없이 전답이 되고

미국이다 할지라도 마음만 내면 서로 전답이 되고 돌아고도 전답이 된다고 하겠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 속의 법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법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체 만물과 더 많이 같이 말을 하고 들으면서 서로 공생하고 공체로서 돌아가며 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이며 부처며 그것이 인간이며, 그것이 바로 보살이며 보신이며 화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는 청룡 황룡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뱃속에도 바로 청룡 황룡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꿈틀거리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하나 움직여야 하는 게 용이

아니고 뭘겠습니까?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부처를 자기한테다 두고 자기 몸뚱이는 탑돌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변소에 들어가면 부처가 없습니까? 법당에 들어가야만 부처가 있습니까? 법당의 형상만 부처입니까? 자기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이려고 살고를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자기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모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마도 부처님이, 그 부처님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부처가 알고 부처가 아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 꺾을 옷을 겁니다.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한번 땅을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비로 이 만물을 다 법비로써 적셔 줄 것입니다.

나는 이날까지 살면서 부처가 돼야지, 내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은 어디까지나 지옥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듯이 깨어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

공한 데서 나오는 것 공한 데다 봐야!

29면에서 계속

어유. 자기가 경험 안 해 본 것은 아픈 줄도 몰라요. 아, 남이 그렇게 아팠다더라 이런 정도지 그렇게 실감나게 알지 못해요. 어디고 한 번씩은 다 들어가서 물 속에 빠져보기도 하고, 불 속에도 뛰어 들어 보기도 하고, 딱그릇에도 옆드려져 보기도 하고... 변연히 알면서도 옆드려져 보는 그러한 패기가 있어야 하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구 비구니가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애 어른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적부터 어른입니까? 어른 된 지 며칠이나 되십니까? 또 늙었으면 애 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모습을 바뀐지 옮겨 갈 뿐이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에 걸려

꺼냈다 하는 게 아니라 답으면 싸 버려, 답으면 싸고 답으면 싸면서 또 자죠. 이 세 가지의 이 뜻이 우리 평생을 배워도 못다 배우는 이런 진리가 거기에, 근본이 거기 들었어. 그래서 자고 먹고 쓴다 하는 그 세 마디에 부처님 법이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여러분 생활의 법이 아니니 무엇이겠습니까.

조상님의 분묘에 대해서

문 며칠 있으면 철석과 백종이 다가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행으로 옮길 내용으로 조상님들의 분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물자가 풍부해져서 요즘은 농촌에서도 빨간색 나무로 하지 않고 프로그래스 등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 산의 흙을 베지 않아 성

한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럼 차에다 싣고 금방 갈 것을 마차에다 싣고 가시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같아 지금도 지금대로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 내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이게 우리가 지수 화풍으로 뭉쳐진 거니까 물 한 그릇 떠 놓고 밝은 불, 향 켜 놓고 삼배 올리고 주인공에다 다 맡기고 다 소해서 물이나 산에 끼얹어 버리고, 그리고 위패를 만들어서 다리니에다가 싸서 탑에 모시되, 한 가정에서 탑 하나만 마련하면 항상 되들어가고 되들어가니, 그래서 돈도 안 드니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인제는 자손들이 산으로 산으로 찾아다니기에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산으로 산으로 찾아다니면서 묘를 보살피고 성묘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세상이 바빠 돌아가고, 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던 염치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라날 자손들을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도리에 맞추어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영탑에 모시려고 마음을 냈고, 또 현실적으로도 성묘를 다니는 일이 어렵다고 하니가 집안 어른들께 잘 말씀드리고 상의들 해서 그런 관습에 얽매이지 마시고 마음먹은 그대로 돌아가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니까요.

성품을 본 후의 공부 과정

문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따로 이름을 부를 것도 없는 자기 자신인데, 다만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것이 본래 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방편으로 불어 둔

그게 도, 바로 진여자리, 진(眞)입니다.

그래서 일체를 낚서 보림하고, 보림하는 사람조차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참나참나 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거기다 다시 보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는 얘기도, 모든 작용을 하나하나 듣고 봤다고 해서 깨어 든다면 그것은 진짜 보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봤을 때 하나하나 체험하고 놓고, 보고 체험하고 또 놓고, 듣고 체험하고 또 놓고... 부처님께서 갖빛대가 몇 겹지, 숨쉬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방 요리 번덕 조리 번덕 그러니 어떤 것을 생각했다고 지적하겠습니까, 자기도 지적을 못하는 반면에 여러분도 지적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지적할 게 없으므로써 그대로 보림을 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난설을 하고 바깥으로 풍기고 바

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히 가르쳐 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할 건덕지가 없어서 말을 해도 안 되고, 이것을 이룰 수도 없고 저릴 수도 없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체 만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밥을 어떻게 배웠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그렇다면 저분들이 바로 나인 것이고 바로 내가 저분들인 것을 어찌 내가 말할 게 없다고, 그 말할 것 없는 것마저도 놔가지 말할 게 없다고 해서 거기에 또 착을 든다면 이것 또한 면목이 없겠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 면목이 없다면 여대에 내려오신 부처님 불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한 부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앉아서 설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앉아서 설하시고 계시니다. 그것은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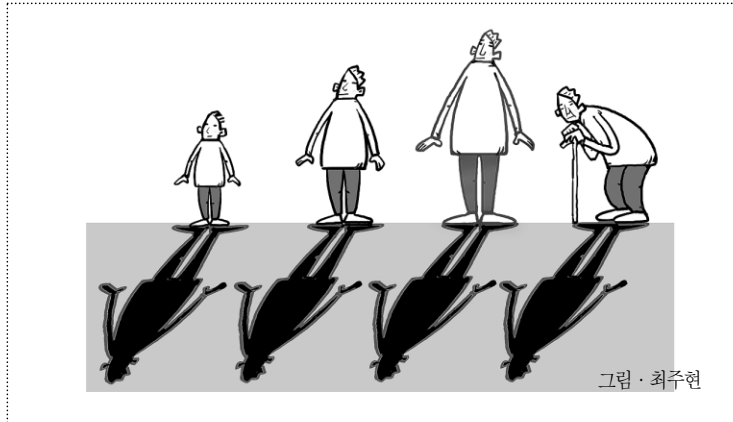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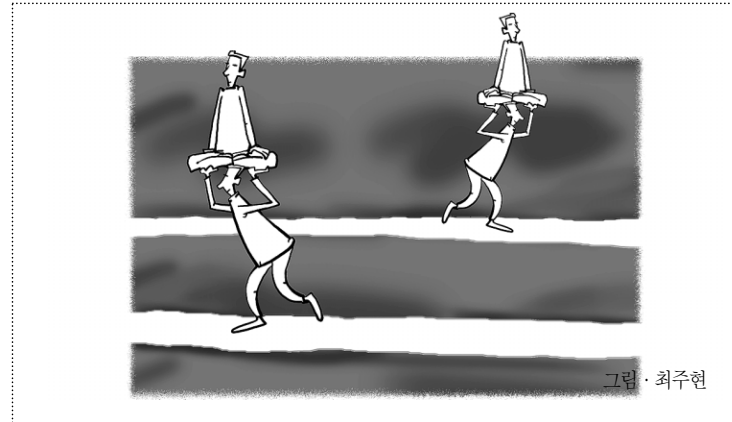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래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같 것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요. 이렇게 된 상황을 잘 아신다면 사랑으로만 알고 이분으로만 알아서도 그 속의 근본을 몰라서 자비가 나오질 않아요. 스스로 자비가 나와야 할 텐데 스스로 자비가 나오질 않으니가 가장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니 그게 되나요? 가다 가다가 그냥 그것은 어디로 가 버린 데 금방 자비를 냈건만도 그런 말뿐이고 이론뿐이었지 돌아서면 그냥 도둑놈이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면서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먹으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싸면서 잘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끊임없는 길을 말하는 거죠. 자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그 공한 한 점에서 나오는 거 한 점에다 다시 말겨 놓는 작업을 하는데, 습이 다 떨어져서 녹아 버리니까 그만 쪽 싣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쪽 싣 사람이, 빈 그릇이 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모든 법을 끝낸다면, 하나 짚죽없이 걸릴 없이 굴릴 거라 이겁니다. 담았다 깨웠다 담았다 깨웠다 해도 항상 그릇은 비워 있을 테니까. 그러니 그렇게 담았다 깨웠다 담았다

묘갈이 온통 텅텅투성이로 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별초하기도 힘이 들고 해서 차체에 조상님들을 화장하여 영탑 공원에 모시고 싶는데 묘소를 잘못 손대면 큰 화를 당한다고 집안 어른들이 말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실행을 해도 되는지 궁극하여 질문드립니다.

답 그런데 그것도 관습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잘 파악해서 행하시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예전대로 그러한 시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름도 달라졌고 땅덩어리도 좁아졌고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러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성품을 본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답 보림을 잘해야 합니다. 첫째도 보림이요 둘째도 보림이다 이겁니다. 첫째도 죽어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고 셋째도 죽어야 합니다. 초발심시변장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이후 회향할 때도 똑같아야 합니다. 세울 것이 없는 게 일체 저입니다. 세울 게 없다는 것은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만법의 작용이죠. 그 작용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성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품에서 나오는 작용을, 만법의 작용을 심빙이 있어야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내 한생각에 깨어있 수 있다면 바로

같이도 안다는 소리를 하고, 밖으로 "너는 오늘 누굴 만났지" "오른 생각을 했었지?" 하고 이는 소리를 한다면 마구니에 말려서 세세생생 꼬달릴 겁니다. 그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주장자를 봤어도 자기 주장자를 봤다는 착을 든다면 고정된 관념 속에 착을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으로 하여금 작용하는 것이 다 한군데서 나오니 한군데다 놓게 된다면 일체 만법이 돌아가는 그 심빙을 바로 자기가 느낄 때 그 심빙은 자기가 일체 만법의 돌아가는 그 프로펠러를 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켤지 못하라는 생동력 있고 여여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정됨이 없어서 두루 걸림이 없이 본

다. 모습은 항상 변질돼 돌아갑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뜻을 알려면 바로 아까 얘기해 드린 그 성품의 작용을 바로 한군데에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한 데서 나오는 것 공한 데다 봐야! 이 완벽해서 그 보림마저도 토했을 때 바로 또 다시 참나참나 돌아가는 작용을 그대로 또 다시 체험하고 놓으면서 보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나참나 나투면서 무의 법 유훈의 법이 그대로, 악과 선이 다 한데 합쳐져서 행하셔도 래일같이 많아 세울 게 없으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역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기존해서 착을 두고 내가 이렇게 깨었으니, 이렇게 나를 왔으니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지 말이 전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이 몸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나의 성품의 작용인 줄 모르고 또 성품의 작용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성품이 작용하는 것에 착을 두지 말고 모든 걸 몰락 나서 다시 보림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패기가 있어야 하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 있어야

사주학특강반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중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월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 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중
특별강의: 관상학, 기문둔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에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575-0404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당 하 당 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당뇨와 미네랄이 만났을때"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달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고혈압, 심장병 등 합병증 예방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 이온성 알칼리 미네랄 복합체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대사성질환(고혈압, 경년기증후군, 류마티스, 신장병, 간염, 간경화, 기관지염, 신경쇠약, 폐내장,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쇠약, 동맥경화, 뇌혈관질환, 여드름, 진전, 배반증, 비혈행, 비염, 구강질환, 치조농부, 심근병 등) 비만, 당뇨병의 처방전과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극대화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진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신천성 냉채 신추바람 남승진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쉬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신장질환자, 맹장염자, 임신부, 임산부, 임산부에게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건지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족의화학자 권재우 홍(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한림 骨仁製藥(株)**